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김형배 (전직 재재소 근무 현재 무직)		
면담자	홍난희	면담지원자	표기자
면담일시	2025. 8. 13.	면담장소	자택 (인천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40번길 32-24 (학익동))
녹취문 작성자	홍난희	회차	1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10~00:01:02)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김형배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13일 월요일 수요일이고, 장소는 김형배님의 자택 (인천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40번길 32-24, 학익동)입니다. 면담 진행은 홍난희가 하겠습니다.

2. 개인신상 (01:03 ~01:30)

면담자: 먼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네 구술 기록을 위해 성함 생년월일 출생지를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저는 내 이름은 김형배입니다. 출생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도내리라는 데에서 태어났습니다.

3. 구술참여동기 (01:31 ~02:22)

면담자: 네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술 기록에 참여해 달라는 섭외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구술 하니까 인터뷰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해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구술자: 근데 여기서는 현재적으로 그걸 역사적으로 다 여기 현재 그전부터 있었던 일을 물어 보는데 거기에 진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적으로 동양화학 생기기 전부터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대로 내가 대답은 해드리죠.

4. 인천으로 이주와 젊은 시절 (02:23 ~15:25)

면담자: 네 현재 호미마을에 거주하시고 계신데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활동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구술자: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면담자: 네 인천에는 언제 이주하셨나요?

구술자: 인천에 온 지는 여기 입주한 지는 58년도 한 7월에 7월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바로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58년도죠.

면담자: 그때 오셨을 때 인천의 도시 모습이 어떠셨나요?

구술자: 그쪽에는 58년도에는 아주 여기가 진짜 살기가 상당히 딱딱한 나라에 동네였어요.

왜냐면은 직장도 없고 여기 제대가 좋아서도 노동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노동일도 다니고 여기 직장이라는 건 별로 여기 지금 저 어디 여 여기 아파트 여기 여기 무슨 아파트예요 여기
여기

지원자: 풍림? 동아풍림?

구술자: 아니요 여기!

지원자: 58년도쯤에 아파트요? 장미아파트?

면담자: 장미아파트? 오래된 거예요 아니면? 최근꺼?

구술자: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면담자: 엑슬르타워?

구술자: 다 여기

지원자: 두산아파트?

구술자: 뭐야! 이렇게 정신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 건너 있잖아요?

여기 저!

지원자: 두산

구술자: 아니 두산 말고 그 옆에 앞에

지원자: 동아풍림도 아니고?

면담자: 엑슬로타워도?

구술자: 풍림아이원!

면담자: 풍림아이원!

지원자: 풍림아이원!

구술자: 거기가 공장이 하나 제철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 나무나 하러 다니고 송도역으로 그냥 그 잔솔밭에 밑에서 나무나 해 주고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기록은 그때 가서 이제 몇 년 후에서 이제 직장을 잡게 됐죠.

면담자: 그때 그 모습이 거기가 이제 마을에 정착한 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마을에 정착을 하셨잖아요. 젊은 시절의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구술자: 그 저기는 진짜 젊었을 적이니깐 결혼해 가지고 내가 57년도에 결혼 군대에 있을 적



에 결혼했어요.

8개월 남겨놓고 결혼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먼저 나 나보다 먼저 인천에 올라온 거죠. 큰 집 따라서 와가지고 저 신혼 쪽인데도 벌어야 빨리 벌어야 될 텐데 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점이 많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년 있다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내가 직장 잡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따로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림 시작한 거지.

면담자: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구술자: 결혼은 57년도에! 57년도에!

면담자: 올라오시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

구술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있을 적에 휴가 와가지고서 결혼하고 부대 들어 가가지고선 첫 휴가는 이제 고향에 있을 적에 첫 휴가를 왔는데 나중에 제대해 가지고는 큰 집 따라서 마누라가 먼저 여기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천상 나도 여기서 정착하고 말은 거죠.

지원자: 그때 여기 마을에 신혼살림 여기 신혼살림을 여기 마을에서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 이제 신혼살림은 이 여기 동네가 아니고 노적산이여! 여기 산 노적산 여기 동양 그 전에 네 사택들이 있는데

지원자: 알아요.

구술자: 그쪽이 여기 노적산이에요. 거기가 거기 밑에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다니다가 이제는 그 사촌 누나가 여기서 살았어요. 누나보고 방 좀 얻어달라고 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둘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이 낳아 가지고 노적산 여기서 낳았어요. 우리 큰딸은

면담자: 그럼 호미마을의 결혼 후 이사는 언제 저기 하셨나요?

구술자: 뭐가요?

면담자: 호미마을로 이사하신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구술자: 이 호미마을이라는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거 몇 년 안 돼요?

뭔 사람들은 호미마을이라면 어딘지도 몰라요. 노적산이라고 알든지! 그렇지! 호미마을이라고 해서는 여기 현재인이 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알지! 뭔 사람들은 호미 마을이라고 해서 몰라요. 어딘지?

면담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적산이 호미 마을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렇지!

구술자: 그렇지! 이제 호미마을 이라는 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뭔 사람들은 몰라요. 호미 마을이라고 해서는 여기 학익1동 노적산 있는 쪽이라고 알지 모른다고?

지원자: 호미마을은 그 유현자 선생님이 14년 전에 마을 만들기 하러 와서 만든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은 당시 그 호미 마을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거주하셨나요?

구술자: 호미마을에는 내가 여기로 이 호미마을 생기기 전에 여기로 이사 올 적에는 상당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이사 온지가 한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기로 온지가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옛날에 나보다 먼저 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선임들은 그 양반들은 돌아가시고 다른 데로 다 이사 가기 때문에 이게 원래가 이 주택이 난민 주택이에요.

50세대 난민 주택 이게 내가 군대에서 제대해 가지고 직장 잡기 전에 이게 미군들 원조 받아 가지고 이게 지은 집이거든요. 이게 내가 이 집은 내가 원래 처음서부터 내가 터 닦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시초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지어놓고 이제는 이게 말만 뽕 돌리 빨간 벽돌로 이렇게 반마이로 이렇게 쌓지 안에는 전부 흙 바른 거예요. 세멘이 아니고 흙을 바르고 그 안에 이렇게 칸살 칸살하는 데 애 엮어가지고 전부 흙으로 바른 집이에요.

구술자: 이게 이게 내가 이게 양 미군 물자 올 적에 내가 꼭 물건 타다가 이게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사촌 내 형이 맡아가지고 자기 집 아들 주려고 이게 지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엮어서 흙을 바르고 뭐 해놓고 완공은 못하고 내가, 내가 그때 못 해 가지고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 딴 데로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송림동, 동인천, 송림동으로다가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내 집을 여기서는 남의 집 생활은 한 2년밖에 안 했어요. 노적산 여기서는 송림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 셋 낳고 마지막으로 막내는 학익2동에서 거기서 이제 집 팔고 학익2동으로 왔죠. 집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내 낳고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있던 돈 그냥 다 까먹고 어쩔 수 없어서 여기로 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 사촌이 살았는데 나는 그때 여덟 식구였어. 5남매에다가 어머니 계시니까 꼭 여덟 식구 아니여! 남 세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구술자: 그래서 사촌하고 상의를 했지! 저도, 저도 사촌 누나고 나도 사촌 누나인데 돈 몇 푼 주고 이제 사는 거야 와 보니께 아주 개판 5분 전이여. 나는 내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와 보니께 큰살림 인데 어따 살림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추녀가다 전부 놓고 그냥 포장으로 다 덮어놓고 모여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는 남의 집이라도 이제는 손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도 없이 살 더 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이라도 내가 이제 이사 갈 적에는 수도 오는 값은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 더라고 그래서 수도도 이제는 그 양반들 다 돌아가셨지 그 양반들 드러 놔 달라고 했더니 그 남바가 하나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놔주고 해서 그때부터 내 수도를 뭇 했지.

근데 그 양반 이 사촌매형도 이 집을 이 아래 두부공장 옆에 거기 뭐야 그거 단독주택들 지었거든요. 빨간 벽돌 이 집을 잡히고선 빨간 벽돌 얻어줬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 집은 다 벽돌 공장으로 다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장도 이거 팔아먹으려고 몹시 애썼는데 땅까지 잡아야지



집만 잡아가지고 뭐 하나 겨 누가 집만 사요?

남의 집으로 올라 있는 거 팔아먹으려고 하다, 하다 뒤편 가지고 이자도 못 낸 거지 그냥 잡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 매형 더러 그런 모양 이에요. 이자하고 그 뒤편하고 선 내고선 당신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매형이 나 있는데 와서 자네 이 집 사게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쪽에는 우리 마누라도 직장에 다니고 뭐 하는데 그때 샀지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때 350인가? 얼마 주고 이 집을 샀어요.

와 보니까 문짝도 다 부러지고 그냥 덜거덕덜거덕하고 이 방 두 개에다가 마루 하나 있고 말았어요. 부엌 하나하고 뼈각 하나하고 근데 내가 이제 하나하나 저기부터 이제 내 집이니까 이제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은 거죠.

면담자: 손때가 묻은 집이네요. 그죠!

지원자: 그 학익2동에서 이곳으로 오실 때는 몇 년도세요?

구술자: 한 50년 50년 돼요.

지원자: 그러면? 1970년대? 1970년대!

구술자: 한 50년 되니까 50년

면담자: 1975년?

구술자: 우리 막내가 그때도 학교 안 들어가고 그냥 젓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개가 지금 59인가 몇 살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넘었지 여기 온 지가

지원자: 50년 좀 넘었네.

5. 동양화학과 인근 도시 풍경 및 생활사 (15:26 ~51:45)

면담자: 동양화학은 그다음에 여기 이사 오신 다음에 동양화학이 생긴거죠?

구술자: 동양화학이 여기로 와가지고선 이제는 동양화학이 그때서 이제 여기 뒤편 했는데 여기 지금 동양화학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석회석으로 다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양젓물도 나오고 카바이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카바이트 공장을 짓고 여기 미추홀 경찰서 있는 쪽이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그쪽으로 가서 논이 에페미(논 하나 라는 뜻) 하나가 상당히 큰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원주인은 지금 장미 아파트 살아요. 그 사람들 논이 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매립하고선 카바이트 공장 짓고 그랬지.

거기다 이제 양젓물 공장은 나중에 탄 데로 넘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선 카바이트 여기 저 석회석 돌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일했죠.

이제는 그 원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허드렛일 하는 거지.

구술자: 그리고 이제 정 직원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동네가 자고 일어나면 먼저 돼야겠지만 서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먼지가 그냥 장독대를 열어놓지 못했어.

장독 향아리를 야 먼지가 이렇게 싸여가지고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동양화학 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목구멍이 포



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얘기하면 모가지 전부 당하면 또 굶어 죽는 거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동양화학이 여기서 돈 많이 벌었죠.

구술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애들은 그제가 어렸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는 고등학교 다 나오고 이제는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정식으로 이제 직원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 막내도 지금 대학교 전문대 나오면서 그냥 바로 탄 데로 스카웃 해 갔는데 거기서 내가 빼돌려가지고 이 큰 데로 다녀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전기과인데 여기로 다니고 우리 큰아들도 발전소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양화학하고 또 헤라우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금실 뽑는데 거기에 이제 동양하고 합작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서 한동안 잘 벌어먹었지요. 거기서 이제 차장으로 있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괜찮았는데 여기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구술자: 탄 나라보다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독일 회사가 왔었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접고선 동양화학하고는 동양화학하고 합작으로 할 적에 들어간 우리 애들은 다 들어가 우리 큰딸도 거기 다녔거든요. 헤라우스라는데 다닐 적에는 동양화학하고 합작으로 할 적에는 동양 화학 눈치 보느라고 돈을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서도 못 준 거예요.

동양화학에서 매라고 할까 봐. 그래서 동양화학하고 이제 합작이 이제 끝나고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해가지고 해라도 따로 뵈 하면서 월급도 괜찮게 타고 우리 큰딸도 거기 다니. 우리 큰딸은 이제 정년퇴직할 때 돼서 그 회사가 여기서 도저히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종말 대고선 탄 나라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은 그때부터 모가지 당해서 이제 실업자 된 거지.

면담자: 안타까웠겠어요! 동양화학의 거대한 공장 모습에 기억나는 그 건물이 있나요?

혹시 기억이 지금 동양화학의 거대했잖아요.

구술자: 저기, 저기 수건 밑에 저 사진이 있어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거기 줘 봐요. 내가 알려줄게요.

면담자: 네.네.네

구술자: 우리 큰아들이 주더라. 아니 그 의자에 거기.

지원자: 아이고 사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구술자: 이거는 동양화학하고 석회석이요. 이게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갔다 오다가 여기서 사진 찍고 뒀한 거예요.

구술자: 이거는 동양화학 안 이에요. 이거 저 이 동양화학 안에 저 운동하는데.

면담자: 운동 거기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

구술자: 이거 동양의 사무실.

면담자: 예! 아! 네! 네!네! 여기 가봤어요.



구술자: 네. 사무실이예요. 이거는 여기 마루턱에서 찍은 건데 산에서 우리 큰아들이 학생 적 이게 찍은 그 밑에 허이케 보는 게 이 공장들이요.

동양화학!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 앞에 지금 여기 봤던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축대하고 이 밑에 집 끄트머리 집이 그거예요.

이거 뭐 지가 하나 마나고 그건 이것도 뭐야 이 내려가는데 이 집이 끄트머리 방이예요.

이게 그 밑에 집들이여.

면담자: 이게. 이게. 어느 집이요?

구술자: 바로 여기 밑에 저기 저 끄트머리 방거기 하나 뒷 한 거? 그 사람들이 전부 도로에다 그렇게 다 뒷 거여. 올라오는 도로인데 원래 살던 사람이 돼지 우리간 만들 고서 돼야지 팔아 먹고서는 그냥 거기다 방 들여서 이 골목을 이렇게 여기 우리가 상당히 피를 보는 거지. 이 장 같은 거 거기 가지고 갔다 내려가지도 못해요.

돌리지도 못하고요.

면담자: 그전에는 여기 길이 이렇게 넓었던 거네요.

구술자: 여기가 옛날에는 이 집 짓고 나서는 다 넓었지요. 근데 이 앞집이가 옆으로 먹고 앞으로 먹고 뒤로 먹고 그냥 다 먹어가지고 평수는 몇 평 안 되는데 그냥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면담자: 지금 공장 모습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지금 이 사진 말고 다른 데 지금 현장에 있을까요?

구술자: 현재 여기 여기 앞에 주신자동차학원 있잖아요. 거기도 논이었어요.

논인데 여기 지금 저 어디 풍림아이원 지금 아파트 지운데 거기가 한국파이프가 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는 철강회사가 있었는데 철강회사가 이제 다 접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한국파이프는 나라 이제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에서 뒷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주신자동차학원 자리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파이프 이제는 뒷 한 거 파이프 만드는 데니까 이제는 코팅을 많이 하고 이제 수도 파이프로 많이 나가고 그랬지 여기서 만드는 거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두산 그런데 아파트 자리는 이 밭이었어요. 중국 놈들이 농사짓고 하는 밭이었다고 전부 이 학교 다니려면 밭 가운데로 길을 대서 다녔지 애들이 그리고 옛날에 동양화학이 생기기 전에 바닷물이 이 위까지 올라왔어요.

구술자: 바닷물이 그 안테나 세운데 거기로 그냥 그쪽으로 큰 하수도가 지금도 밑으로다가 하수도가 있어요. 여 경찰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로 큰 수문이 있어요. 큰 개천이 있다고 거기 지금 양쪽으로 보로커 싸서 공고리 해가지고 거기로 가 바다로 나가게 다 만들어 났지.

그런데 이젠 여기 저 전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하수도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수도가 위애가 있구. 근데 바닷물이 그전에 여기까지 올랐어요. 옛날에

지원자: 그 개천이 학익천이예요?



구술자: 개천! 아주! 학익천 학익천이 그게 지금 현재도 뭐 오물 같은 거 이제 뿔뿔 더 뿔하
려면 그 전부 뚜껑 떠들고 뿔하고 하잖아요. 맨홀 해놔잖아요. 군데군데 지금 그래요. 지금 현
재 거기가

면담자: 편히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면 편히 앉으셔도 돼요.

예. 동양화학 공장 안으로 석회석 소금 등 싣고 들어오는 철도를 기억하시는지요?

구술자: 철길 그전에는 수인역이라는데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이 동양화학 쪽으로 다가 오느
라고 철길을 냈죠. 철길 동양화학까지 들어가게 석회석 싣고 오며는 동양학에서 전부 인부들
이 다 부려주면 이제 그때서 이제 끌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 동양화학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SK 지금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 안에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유류 창고야 거기가 기름 창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산등성이가 큰 파이프 창고가 탱크가 군데군데 있었죠. 기름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이 수인선
이라고 철길 옆으로다가 수인선이라고 기름 파이프가 그냥 큰 놈이 그 해가지고선 땅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 현재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인지 그거를 다 도둑질해 먹는 거야. 이스메(이음새)파이프 있잖아 거기 이제는 그
머리가 한국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데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여! 그놈이 이제 뿔로 따가지고선
보도만 조금 풀으면 말이여. 옆으로 새는 거요.

구술자: 짝 세면은 그냥 그 큰 뭐야 비닐 같은 건데로 하나 되면 그냥 딱 잠그고선 이제 가져
가고 여기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벌었죠.

지원자: 기름 얘기 하신 거예요!

구술자: 이게 그렇게 도둑질해 가지고 그 미군들이 거기서 보초 서고해도 소용없어요.

도둑질 하는데 뭐야 골목이나 어디 탱크 밑에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 데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틀어 놓고 또 쳐가지고선 저 밑에서 그냥 퍼서 담고 이제 다 이
제 할 만하면 다 했으면 이제 잠그라고 해서 이제 잠그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옛날에.

지원자: 어르신도 그거 하셨어요? 어르신도 그거 하셨어?

구술자: 나는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우리는 못 해요.

그런 거 괜히 거기서 불이 나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휘발유고 뭐이고 그냥 거기 있는 대
로 다 못하는 건데 그, 그 사람들은 갔다가 이제 큰 항아리에다 이제 쏟아가지고 이제는 또
오라고 해서 장사꾼들 오라고 해서 팔아먹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미군들이 안 되겠어서 탱크도 다 없애고 못 하고선 있다
가 나중에 이 개인 한국 사람이다 넘겨버린 거지.

면담자: 혹시 수인선 철도에 관해서 재미난 일이 있었던 거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여기 있으면서?

구술자: 근데 그게 그전에 수인선이라고 철길이 있는데 옛날에 양 부대에서 나오는 그러게 밥



쓰레기통이지 꿀꿀이 죽이라고 그것이 옛날에는 참 유명했어요.

부대에서 나오는 거고 말하자면은 지금으로면 짬뽕이지 짬뽕 식당에서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전에는 부대에서 나오는 거 짬뽕 그걸 사다가 푹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 먹고 그랬어요. 그거 팔고 그랬는데 나도 그걸 많이 먹어서 봤지만 먹으면 탄 거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별 거 다 나오지 거기서 담배꽂초도 나오고 그 쓰레기니까 이 새끼들이 처먹고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수인역으로 꿀꿀이 죽 사라 다녔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수인역으로 이젠 다니다가 그 기차 애 하나 치는 거 봐가지고 그냥, 그냥 그 철길로 모여서 가다가 뭐 하면 사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잘라지는 거지. 그거 보고서 그다음은 거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징그러워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제.

면담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동양화학 근처에 미군 부대 유류창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미사일 부대가 있었거든요.

구술자: 잉!

면담자: 미사일 부대?

구술자: 어! 미사일 부대는 배꼽산 거기 가 있었는데

지원자: 배꼽산? 어디예요?

구술자: 저 배꼽산 저기

지원자: 문학산?

구술자: 문학 문학산 거기가 거기에 거기가 미사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미사일 부대 밑에는 그 아래가 있었지 부대에는 우리 막내도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해 봤지만 여기 아니고 동두천 거기서 우리 막내도 미사일 부대에서 건너 있다고 지금 군산에서 사는 놈 그놈이.

면담자: 군대 있을 때요?

구술자: 군대 있을 적이. 그놈도 이제 지금 59 된 놈 그놈이 이제 그래서 미사일 부대라는 건 산꼭대기에서 이 망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여! 비행기 잡고 그러는 거니까 그제.

면담자: 아까 동양화학이 어떤 걸 생산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던데?

구술자: 옹?

면담자: 동양화학이라는 곳이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술자: 석회석에서 뭇 해가지고 거기서 소다회 나오고 식소다도 나오고 거기서 양젓물도 나오고 카바이트도 나오고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회림씨 라는 회장님이 자식들 보고 그런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일절 그렇게 먼지가 그렇게 나고 분지가 그렇게 많이 생겨도 말 한마디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해니까 이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더러 너희들 여기 나중이라도 개발 되며는 동네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같이 가라. 그랬다고 대답만 해놓고선 이제는 쥐 아버지는 이제 이회림 씨는 돌아가시고 이북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자식들이 이 동양화학이 하다가 이제 이게 중간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매립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매립할 데가 없으니깐 중단하고선 어디 장소를 잡으려야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중국 놈들께 팔아먹은 거 아니여. 이 중국 놈들께서 이제 소다회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다 쓰는데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불량으로다가 만드니까 헐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고 가서 기술을 여기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줘 가지고 제대로 뽑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동양화학에서 수입 해다가 팔은 거지. 그래서 중국 놈들은 어디 거냐 우리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렇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중국서 사 오는 거지 이제 동양화학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국내에서 또 팔아먹는 거지.

그전에 식소다 같은 거 뭐 하더문 원 직원들 우리 막내는 누구 동양화학 당길 때 야 “소다 좀 식소다 좀 얻어 와라!” 그러면 한 봉지씩 얻어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그게 매립할 데가 없으니깐 천상 접어두고선 더 나갈 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동양화학 아파트 짓잖아요. 저 밑에 뜨고 그 밑에는 바다 아니여.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깐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한 거지.

면담자: 동양화학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좀 그래도 먼지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술자: 민원 넣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 저 뭐야 그 돌 그거 올라가서 그 높이 올라가가지고선 바가지로 떠가지고 거기서 그냥 짝 쏟아버려요.

탱크로다가 ‘와르르릉!’ 소리 나면은 그 먼지가 다 어디로 날아와서 먼지가 다 이 동네로 다 오는 거지.

면담자: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

구술자: 아무 말도 그래도 장독대를 열어놓지 못했어요. 그게 여기 사람들은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 직원 보듬도 하청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았죠.

면담자: 소리, 소리는 많이 안 들렸어요. 소음, 소음 같은 경우는 안 들렸어요?

구술자: 소음 같은 것도 많이 그전에는 뿌연게 날르고 그냥 벌일 다 했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그래도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민원 한 번 넣은 것도 없고 그냥 뭣했는데 동양화학에서 이제 그 회장님이 동네 사람들 어디까지나 끌고 가거라. 그런 건데 6천 평 있는 아들놈들이 골치 아프니깐 동네 사람들 끼면 골치 아프니깐 6천 평 때 주고선 그냥 자기네만 간 거지. 근데 나중에 6천 평이라는 거는 이 동양화학 지금 도로 냈잖아요.

그것도 동양화학에서 낸 거예요. 도로도 원래부터 옛날부터 경찰서에서 그렇게 짜서 그게 원래 도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음식점도 하나 그냥 그대로 나갔잖아요. 도로 부지에서

면담자: 청수식당! 예.

구술자: 예. 근데 그것도 안 받을 건데 아파트 지었는데 준공 검사를 맡아야 될 텐데 시에서



그러니까 도로, 도로 내야 준공검사 해 준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도로를 만들은 거지. 그 래가지고 도로 하나 난 다음에 준공 검사해가지고 팔고 그러잖아요.

면담자: 동양화학은 지역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구술자: 예.

면담자: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남 등 교류가 있었나요?

구술자: 옹!

면담자: 주민들과 여기 동양화학 임원진들과 서로 불편한 점 이야기하면서 서로 만난 적 이 있나요?

구술자: 예! 없어요. 한 번 그런 것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가 지고 그냥 동양화학 이제 끝나고 뿔 하고 나니까 뭐 그대로 그냥 말하고 말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학하고 이제 아파트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동양하고 이제 여기 문 닫고 군산시장이 땅이고 뭐이고 싸게 줄 테니까 군산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군산 바닷가에 매립한 데 거기 다 차지해 가지고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큰 발전소 지었어요. 거기도 우리 막내가 할 수 없이 이 동양화학 클로 내려가니 께 할 수 없이 거기 같이 따라간 거지.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면담자: 아버님 전화하신가 보다.

지원자: 군산에

구술자: 군산서 지금 제 직장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네. 뉴스들이 이게 인천에 비 많이 왔다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전화한 거예요.

면담자: 효자분이시네요.

구술자: 그래서 애는 지금 거기서 발전소 큰 거지어서 거기 팀장으로 가 있어서 애 월급 괜찮 게 타요. 지금 애가 거기 들어간 지가 한 40년 돼 갈 거야. 아마 거기서!

면담자: 동양화학 직원들이 월급날이면 인근 상가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무허가 이제 월급날이에요. 그냥 월급날이면 또 돈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또 많 이 쓸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구술자: 분위기가 여기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날은 월급날은 괜찮지. 어디고 어디고 이제 직장들이 있는데 월급날이면 다 매상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괜찮지 괜찮은데 여기가 원래는 직장이 좀 인천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지. 그래 가지고 인천은 아주 살기도 힘들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한국파이프고 뭐이고 다 당진으로 나갔잖아요.

당진으로 나가고 OCI 이런 것도 다 군산으로 나가고 그쪽으로 외부로 다 뺏겨버리고 말은 거 지.

면담자: 여기도 슈퍼에서 외상값 갚고 막 그러셨어요? 슈퍼에 가면은 이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게 구멍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월급날이면 사람들이 그동안 외상으로 먹던 걸 이렇게 갚고 그랬잖아요? 예!

구술자: 갚고 그랬지. 그러니까 동양화학이 월급이 잘 나오니깐 누구든지 외상으로는 그냥 막 펍펍 퍼졌지! 쌀이고 뭐이고 그러니까 이거 외상 먹는 거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뭐든지 월급도 잘 안 주고 하는데 진짜 그 날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만 동양화학 같은 데는 월급날 며칠날 이라면 딱 그날로 나오기 때문에 지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괜찮지.

면담자: 혹시 동양화학이 운영했던 세인천폴장 아시나요? 세인천폴장 동양화학에서

구술자: 생산부장?

면담자: 세인천폴장?

구술자: 세인천폴장? 거기는 지금 어디 옛날에는 저쪽이 지금 뭐든지 사원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저쪽 끄트머리 쪽으로 폴장이 있었어요. 폴장 거기서 못 하디. 우리 할머니도 거기서 우리 마누라도 거기서 일도 좀 하고 그랬지 그 수영장이여 말하자면 거기서도 일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거기서 이제는 폴장이니까 뭐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 그 전에 먹고 살라고 이제는 애들 한참 먹고서 할 적이니까 할 수 없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니여. 저기 애들 낳고 우리 마누라는 낚주기만 했지.

내가 외톨백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해 가지고 마누라보고도 애들은 낳는 데까지 낳라고 뒷바라지는 내가 뒷담당은 내가 할 테니깐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5남매까지 살았는데 현재는 지금 애들이 뭐이고 보면은 엄마가 최고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뭐야 아버지는 여기 먹고 사는 데 책임지는 거지만은 엄마는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뭐야 저 키우고 하는 데가 아주 뽀 하잖아여. 그래서 이게 칠순 잔치 하는 것도 나도 저건 칠순 잔치 할 적엔 탄 사람들은 전부 봉투 받아서 다 받았어요. 여기 지금 현재를 살면서 봉투 안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우리는 애초에 우리 큰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칠순 잔치 하려 한다고.’ ‘야! 그러면 너 봉투 받을래?’ ‘왜요?’ 그러더라고 ‘봉투 받으면 하지 마라 해주기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봉투 안 받아요.’ ‘안 받으면 해라.’ 그래가지고선 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진짜 잘했지. 아주 처음에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는 계약 할 적에 몇 명 정도 되냐고 그러더라고 한 200명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돼지 하나 바비큐 하나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바비큐 하나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다 하게 이렇게 사진은 안 찍었어도 어지간히 크게는 찍었어요.

사진만 찍고 쥐 어매는 이렇게 거창하게 해줬어요. 아주! 그래서 내 속으로 엄마가 다르긴 아버지하고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쥐 어매에 저기 칠순잔치 할 적에 찍은 거 보면 큰 거 하나 아주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왔어요. 아주 사진을 아주 그거 보면은 야! 쥐 어매가 달긴 달고나 아베보다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깐.

면담자: 새인천폴장에서?

면담자: 혹시 자녀분들 뭐 새인천폴장에 같이 가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구술자: 그쪽에는 내가 나는 직장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 벌어 먹이고 할려면은 애들은 학교 가르치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애들은 어디까지나 배운 데까지 가르쳐준다고 내가 다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난 어디 놀러 다니고 이제는 저런 데 이제 뭣 하면은 각 동네마다 친목회가지고 놀러는 다녔잖아요. 놀러는 다했는데 그 바람에 친목회 바람에 진짜 안 다닌데 다 다녀봤어요. 지금 뭐 사진도 보니까 추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여. 그래서 진짜 애들 뭣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최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열 달 동안 뱃속에다 넣었다가 뭣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엄마가 책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쥐 어매가 또 애들을 잘 키워 가지고 전부 자식들이 전부 효자여. 말 잘 듣고 이 5남매가 계를 해가지고 부모의 쓰는 거고 뭐이고 다 자식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큰 목돈 들어가거나 안 하면은 생활비도 한 40만 원씩 보내잖아요.

구술자: 지금 막내며느리가 총무데 막내며느리가 딱딱 해서 25일 날이면 통장으로 딱 들어와요. 모이고 내가 이제 목돈 쓰잖아요. 이 다달이 할부를 하면 다달이 얼마씩 들어 간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서 다 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도 자식들은 잘 키우다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애들은 같이 있는 거 여자들만 그런 거야. 여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디 가는지 살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배우는 데까지 배워야 되니까 내 동생들 가르쳐야 하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큰 딸도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말고 그래가지고 바로 애들은 실업계로 다 뭣 한 거지.

구술자: 둘째 딸도 실업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그만두고 근데 우리 큰아들들은 대학교 가라니까 아들 학교 안 간대 너 나중에 부모 원망하지 말아 나는 가르쳐주지 못해서 공부 못했지만 너희들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안 한데 아주 공부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군대 나가버리더니 군대 가서 나중에 제대해 가지고 와서 그때 후회하니 일단 버스는 지난 거 아니여. 그랬더니 막내도 중학교 때는 노랑 바닥 굽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조금 공부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새끼들 공부하려고 상금금도 걸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막내도 그러더라고 ‘아버지 대학교 가면 안 돼?’ ‘내 실력만 있으면 불기만 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은 대학교 가르칠 테니까!’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 전문대 밖에 못 들어가고 말은 거 아니여. 인하 전문대 나왔어요. 전기과 나왔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벌어먹고 있는 거지.

6. 동양화학과 연을 맺다. (51:46~1:08:27)

면담자: 아드님이 동양학에 다니고 있는 것이 든든하시죠. 지금 현재는 OCI라고 하나요?



네. 지금 동양화학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예 막내 아드님이 네 마음이 든든하시죠.

구술자: 든든하죠. 그놈이 제일 든든해요. 그놈. 네. 식구가 다 벌었어요.

지금 저 그 손자 놈도 축구부에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축구부에 있다고 쥐엄마는 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놈 다니는 대로 쫓아다닌 거예요. 겨울에는 제주도로 가고 그래 이제 쥐 아빠가 이제는 우리 막내아들이 월급을 어느 정도 타니까 뒷바라지해 주는 거지. 운동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저 만수동에 38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요. 그거 세 주고선 군산으로 내려갔거든. 그거 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아파트 하나 날렸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 번다고 에미도 다니고 에미도 영양사 자격증 따가지고 영양사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막내도 뭐 해가지고 동양화학하고 같은 계열회사 유니드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 지금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지원자: 그러니까 손주가요?

구술자: 축구부 그놈이 고등학교 때 포기해 버렸거든. 나 안 된다고.

지원자: 축구하던 손주가 유니드 들어갔어요?

구술자: 그놈이 지금 동양화학 이제 계열 회사 들어갔지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놈. 그래서 그 집이가 제일 낫다니깐. 그놈은 거기 군산 가서 땅 300평 사 가지고 철골로다가 60평짜리 가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손녀 딸 있거든. 저 뭐야 홍익대학교 장학금 받으면 공부한 놈이 커피숍 한다고 쥐 아빠에다가 가게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가게 지었는데 지금 그놈은 그 커피숍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월급이나 나오냐니까?' 막내아들이 왜냐하면 지금 동네 다니는 놈 이리 '제 월급은 무슨 제 월급이여 내 월급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그놈이 제일 나아요. 든든하고 그놈은 오로지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놈이야.

지원자: 근데 아까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아버님께서 권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술자: 잉!

면담자: 막내 아드님이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된 게 아버님이 여기 그래도 회사 큰 데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술자: 그 전문대 졸업할 적에 스카웃 해 갔어요. 회사 탄 사람이 해 갔는데 그 뭇 한 거는 전기를 자동으로 이제 하는 그 줄을 만들고 그러는데 회사인데 내가 그랬어요.

이 동양화학 차라리 동양화학 들어가는 게 낫지 내가 그놈 보고 그랬어요.

'너 거기 다니는 것보다 이 큰 회사로 오는 게 낫지 않냐?' '이거 낫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거 그만두고 와라. 그래가지고 단박에 합격됐죠. 면접 보고 해가지고 이제 합격돼가지고 진짜 거기 성실하게 잘 다녀요.

지원자: 그래도 인근의 주민 이다 라는 게 그게 많이 가점이 돼서 더 취업할 수 있었던 거죠?

구술자: 그렇지. 그걸 많이 그래도 동양화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더 신경 쓰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네가 그렇게 분지가 많이 나오고 해도 말 한마디도 않고 뭐한테 고맙지.

주희들은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이웃 사람들을 많이 썼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저런 잡부 일을 하려니까 하청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예.

지원자: 하청업도 다 그 동양화학에 들어가서 회사만 하청 업체지만 일은 거기 동양화학에서 일하는 거죠?

구술자: 동양화학 일이죠. 다 동양화학의 일이야. 다 일절 다. 그러니까 굶은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굶은일은 이 석회석 같은 거. 돌 들어오면 아까 돌 더미 봤죠?

면담자: 예. 예. 돌 더미요?

구술자: 그거 그게 기차로 싣고 와서 부리는 거거든 그거 저거 그거 이제 기차 들어 오면은 그거 다 부려줘야 하거든 양쪽으로 그래야 기차 빨리 빼가지.

그래서 철길이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동양화학 들어가느라고

지원자: 그럼, 그 돌 갖다가 뭐에 쓰는 거예요? 그 돌은?

구술자: 그놈을 그러니까 열로다가 그놈을 이제

지원자: 이게 석회석인 거예요. 돌이 이 석회석을 더 이게 석회석이죠?

구술자: 이게 이런 데는 이게 돌이 이런 돌이 없어요. 강원도 어딘가 산 있는데 그 산을 다 샀다고 하더라고. 동양화학에서 석회석 그 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놈이 이제는 이 보일러 이제 스팀으로 해가지고선 그놈을 이제 말하자면 굶는 거지 구워가지고 그놈을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다 카바이트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화학이라는 건

동양화학은 유리한 것만 뭇하게 소다에 나오고 식소도도 나오고 양젓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전에 일하는 여자들도 하청업으로 들어가서 뭐하다가 양젓물 구덩이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 양젓물도 팔팔 끓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냥 양젓물 있어서 들어가면 죽는데 얼마나 그게 세요 그게.

면담자: 타 죽죠. 지금 돌아가신 아내분도 사모님 배우자분 있죠.

어머님 어머님도 함께 거기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구술자: 한동안 한 한 1년 했나 2년이나 그 정도 했어요.

면담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러니까 몰라요. 무슨 청소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야간에도 못 하면 자다가 이제 어디서 쪼그리고 이제 앉아서도 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지원자: 아까 새인천폴장에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술자: 거기도 다니고 청소하러 다니는 거지. 청소하러

지원자: 거기도 다니고 다른 회사도 다니고?

면담자: 그러니까 하청 동양화학 어머님이 그러니까 자녀분들 키우려니까 일이라면 일이



있는데 가서 일하는 데는 다 하셨네요. 그쵸! 일자리 있으면?

지원자: 그런데 어느 회사에?

면담자: 그 하청업체 동양화학 하청업체 이름은 모르세요?

구술자: 몰라요?

구술자: 이제 다니면 되는가 보다 그랬지

면담자: 회사 이름은 모르시구요?

구술자: 예 그게 여기 지금 밑에도 지금 살고 내 동갑네 인데 거기가 하청업체에다가 소금도 들어 가 잦아. 소금도 이제는 소다회 만들고 할려면 이제 소금도 들어가잖아.

외국서 본선 대를 싣고 와서 막 덩어리 소금도 있고 그래요.

겨울에도 소금도 얼 잦아요. 그거 일하다가 소금 들어가는 대로 이제 퍼서 이제 넣고

그러다가 봄에 해소될 적이 그 뭐야 소금 더미가

지원자: 녹아?

면담자: 무너져서!

구술자: 하적 뭐 넘어가는 녹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아주 거기 치여서 아주 죽었잖아.

즉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 얘기는 발만 나오는 거 뭐든 거 그냥 발에다

묶어가지고 끌어당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이 허게 얇고 자동으로다가 이제 그때부터 해놓은 거지.

면담자: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이렇게, 이렇게 소금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운반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동 이에요?

구술자: 예전에는 삽으로 퍼 넣고 그러는 모양이여 여기 들어가는 대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사고 나고 난 대로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지.

면담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술자: 모르지. 자동으로 들었는데 나 가서 일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 그러셨구나.

난 동양화학 돈은 1원 한 장도 못 불러 봤으니까?

지원자: 왜 왜 취업할 생각 안 하셨어요? 동양화학

구술자: 나는 딱 데 가 직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면담자: 어떤 일을 하셨죠? 아버님은?

구술자: 나는 옛날에는 옛 공장이라고 해서 합동제테 라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었지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별이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회사만

출근하면은 바로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퇴근하는 거지.

근데 그쪽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저기 저 어디 그게 이 용현동 저에 있는데

꼭대기 전도관이라고 있었다고.



면담자: 네. 네. 네.

구술자: 전도관 꼭대기가. 거기 불 쓰는 거 보고 내가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송의동로타리 거기서 경찰서한테 경찰들한테 통행금지 해제도 안 되는데 간다고 붙잡아가지고 통행 해지 된 뒤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인천역 가서 붙잡혀 가지고 어디 가냐고 일하러 간다고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합동제테라고 그러면 아이 빨리 가라 가라고 그것도 이제 합동제테에서 이제는 거기 파출소를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가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옛날에.

면담자: 합동 제재소?

구술자: 합동제테 옛 공장이니까

면담자: 제테.

구술자: 그래서 거기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제는 나중에 배달을 했죠.

각 고물상에다 보내는 거예요. 고물장사들 옛 주고 저런 쇠붙이 같은 거 받고 그랬잖아 그 옛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옛 조금 잘라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고물상으로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내가 체구는 적어도 보통 200근 이상 싣고 다녔어요. 내가 뭐 해서 지금 금방 퍼서 그냥 팔팔 끓는 놈도 그냥 몇 통씩 해서 싣고 선 그전에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으니깐 전동이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전동이 있는데 거기 동인천 있는데 그게 그 여고 있죠? 바로 옆에 여고 있는 여고 뒤에 옛날에 해군병원이라고 있었어요. 해군병원 밑에 거기가 바로 합동제테 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그렇게 싣고 선 자전거 앞아도 내리받이니깐 그냥 내려 가면은 저기 저 화수동 파출소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지 차 많아서.

면담자: 그쵸?

구술자: 그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어 중앙시장 들어가는데 그 애초 놈은 지금도 화평동으로 가고 하는데 이거 거기로 그냥 그릇도 그냥 막 고장 그 위 자유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가파져요 거기서 발하나 안 저어도 화평동 파출소 앞에까지 갔다고 거기 다리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적에는 아주 동인천은 아주 후비고 돌아다녀서 골목이 세상이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면담자: 그러면 아버님이 여기서부터 거기 거기 동인천이 있는데 거기 가실 때까지는 출근을 아침에 뭘로 하셨어요? 버스가 있었나요?

구술자: 그전에 걸어도 다니고. 자전거 뭐 할 적에 있는데 걸어도 다니고. 내가 자전거 타고 거기서 공장에서 자전거 타고 시장하는 데는 자전거 타고 다녔지!

면담자: 그때 모습은 어땠어요? 동인천이랑 인천의 모습?

구술자: 동인천도 별로 화평동 그쪽에는 초가집도 있고 옛날에 근데 화평동하고 송현동 그런



데거든요. 그게?

면담자: 그때가 몇 년도 정도 됐을까요? 70년도? 80년도?

구술자: 초가집도 있고 집이 다 후졌지 다 제대로 된 집이 별로 없지.

면담자: 그게, 그게 한 1970년도쯤일까요? 말씀하신 때가?

구술자: 그러게 그게.

면담자: 70년도? 80년도?

구술자: 그렇지 그 58년도 내가 거기 다니고 한참 다닐 적이 5.16 혁명 났는데 내가 거기 있을 적이 5.16 혁명이 몇 년도요? 그쪽이가 내가 거기 있었거든 박정희가

지원자: 80년대

구술자: 혁명 일으켜서 박정희가 잡은 거 아니여.

면담자: 그쵸!

구술자: 이승만이 할 적이

지원자: 70년대 70년대

면담자: 중반?

구술자: 그쪽에 내가 거기 다녔어요. 5.16 혁명 날 적에가.

면담자: 그럼 그때쯤 주변이 다 초가집이 있고 그랬어요?

구술자: 초가집도 있고 뭐 집이 다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지.

면담자: 차들도 지금처럼 많지도 않고요?

구술자: 예. 차도 많지도 않고 그때 차가 그렇게 많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 힘들지 그전에 차미전 거리라고 거기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장화, 장화 없이는 거기 못 산다고 했어요.

퍼럭퍼럭 험게 여기까지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 차미전거리 거기가 예전에 야채 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도 있고 그렇게 만들 었더라고 그 안에 야채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든 게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발전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로도 제대로 만들고 그랬지.

그쪽엔 자전거 타고 차는 없어도 진짜 힘 들었어. 비포장도로 송림로타리서 어디 저 제물포 후문 쪽으로 가려 면은 배지기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있거든.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거기가 비포장도로에서 짐 그렇게 많이 싣고 내리기 싫어서 예 내리기 싫어서 목구멍에서 불나는 한이 있더라. 그냥 내리지 않고 그냥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술자: 옛날이지 그게 여기 비포장도로 그래서 차는 많지 않아도 다니긴 좋았는데 그렇게 힘 들었지!

7.동양화학인천공장 철거와 학익동 변화에 대한 소회(1:08:28~1:35:41)

면담자: 혹시 동양화학 인천 공장 철거 후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동네 주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기 뭐 풍림아이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막 아파트 들어오고?

구술자: 근데 여기가 빨리 발전이 다 되고 우리 동네만 남았어요.

현재 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조합 구성이 돼 있으니 이제 잘 되겠지.

우리는 반대쪽이 거든. 짓지 말라는 반대가 아니라 땅값을 제대로 주고 해라.

그런데 우리는 도시개발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도시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사가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여기 조합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조합이 돌아가는데 언제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더기 하면 곤란하지만은 같이 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거든. 근데 거기 그런데 같이 조합원으로 같이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조합 구성하면은 우선 조합장하고 사무직 몇 사람 월급이 나가야 돼요. 그 월급을 줄라면은 조합원들께서 돈 받아야 그 사람들 월급을 다 줄 거 아니야 조합장도 월급 받아먹으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니까 이제 언제 이제는 되려는지 모르지. 우리는 자세한 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못 들으니까.

면담자: 동네 주민들도 이 주변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씨티오씨엘 들어왔지 풍림아이원 들어왔지 미추홀 경찰서 들어오지 이렇게 동네가 확 변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는지?

구술자: 근데 여기서는 걱정하지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전세도 못 살 짱아요. 이 돈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부터 그래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세 집인가 몇 집인가 지금 제일 넓어요. 50평 넘는 집 아래 길 밑에 하곤 달라요. 길 밑에는 개인 땅이 이게 여기는 50평 거전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41평이에요.

세 집인가 뭇하고 다 보통 20평 20평 조금 넘고 그래요.

그게 41평인데도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가 전세도 못 살겠어. 좌우간에 우리 큰아들 아버지 천상 이거 팔으면 빌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빌라 요새도 나 홀로 아파트 마냥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아파트 마냥 진 데가 있잖아요. 지금 송의동 가면 그게 많더라고 천상 그러나 빌라로 가든지 해야겠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뭇하니께 그전에 대경목재라고 옛날에 그 철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철길 몰라요?

면담자: 수인선 말고요?

구술자: 수인선 말고.

지원자: 송의동에?

구술자: 용현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턱 졌잖아요. 거기 이제 이 집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가 철길이 있던 데야.



면담자: 길을 공원으로 만들었죠. 공원으로 만들어

구술자: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철길 이쪽으로는 용현동이고 철길 넘으면 송의동이고.

면담자: 맞아요. 맞아요.

구술자: 근데 옛날에 거기 대경목재라고 있었어요. 대경 목재가 그전에 이제 옛 공장 다니다가 애들은 뭐 나는 애들 가르치고 먹이고 살리려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어요. 돈벌이라면 무조건 다 다니면서 했어요. 젊었을 적이니까 뭐이고 저 하인천 가서 가대기까지 다 있어요. 그쪽에 노조가 없어서 그쪽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하면 일하면 되고 가대기까지 다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가대기가 뭐예요?

구술자: 가대기! 뭐야 그전에 쌀 원조 들어오면 미국서 들어오며는 그러면 배에서 본선에서 쌀 부려야 이제 나갈 거 아니여. 보슬리 부르면은 밑에서 가마에다 담아 주면은 밑에서 메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발판 타고

지원자: 이거 음료수라도 좀 드세요.

구술자: 근데 물이 들어왔을 적에는 판판하니까 다니기가 좋은데 물 나가면 이렇게 경사지면은 시로도니까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그냥 노냥 절절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참들이 기차 불 불차 기차 뿔 달았다고 불통 달았다고 막 뭐 하는 거여 그냥 막 발판 그냥 흔들기도 하고 지랄하고 그래서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그 모든 걸

면담자: 아휴! 아버지의 자리 가장의 자리가 참 컸었네요.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물 좀 드릴까요?

지원자: 천천히. 쉬었다가.

구술자: 아니요. 됐어요.

구술자: 내가 이렇게 기침하고 가래가 많아 가지고 옛날에 천식이라고 있었잖아. 해소 그건 다 나셨는데 이렇게 가다가 가래 많이 나오고 기침더러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끼들이 쥐 어매 쥐 아배 고생해가지고 쥐희들 그만큼 길러가지고 뭐 해서 잘해 주니께 고맙고 그 어떤 집 새끼들도 못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부모고 뭐이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새끼들은 부모에게 지금 잘해요.

면담자: 근데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양화학하고 같이 결합된 힐 뭐라고 그러시죠?

저기 아드님하고 제 따님이 다녔다는 회사가 헤라우스?

구술자: 어 헤라우스?

면담자: 그게 뭐예요?

구술자: 그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이거 뭐야? 이 핸드폰 만들고 하는데 금실 뿔잖아요. 금실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게 네. 금실 뽑는 회사였어요. 99% 금실이여.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그 안에서 일한 작업복도 그 안에서 다 털고 나오는 거여.



머리카락도 얇은 거니까 이런 데 다 물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여.

그런데도 뭐 했다가 뭣 한 놈은. 그런데 뭐에다가 걸려가지고 유치장 가는 놈도 있고

그랬데요. 그 금이라는 게 조금만 가지고 나와도 엄청나잖아요.

99% 금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털고 나오고 그냥 작업복도 다 그래.

근데 우리 큰아들 나중에 이제 동양화학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모였다가

그거 회사로 들어간 거요. 그래도 조금 다니다가 못하는데 차장으로 인정돼서 있어가지고

그놈은 거기서도 괜찮게 월급 받았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 회사가 탄 나라로 가는 통에 그냥 그만둔 거지.

우리 큰딸도 다녔는데 큰 딸은 정년퇴직이 돼서 정년퇴직하면서 회사도 그만둔 거예요.

회사도 나간 거여.

지원자: 이 회사 어디쯤에 있었어요?

구술자: 예?

지원자: 헤라우스 어디쯤에?

구술자: 헤라우스가 지금 거기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쪽 어디냐면은 이 조개고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현재 이 다리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거기 새터먹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는 그쪽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리 있고 뭣하고 하니께 개발이 안 되지 거기 쪽으로는.

면담자: 이 위에 다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응! 그래. 그래. 거기가 전기 뭐든 변전소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나중에 거기다 짓더라고!

면담자: 그러면 아버님 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구술자: 내가 뭐였다가 나중에는 재재소에 갔는데 그 재재소에서는 내가 판매도 나중에는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젊었을 적이니까 남의 눈에 뭐 하질 않거든.

그 사장 눈에도 내가 데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더러.

너 판매해라 그래서 판매를 한 거 아니여. 판매하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양심적으로다가

뭐이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로를 시작해가지고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사러 다니고 이제 그쪽에는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연안부두 쪽으로 많이 다녔지.

구술자: 그래서 나더러 이제는 어디 가서 물건보고 누가 이제는 소개해서 그거 사라고 보 한 배가 들어왔는데 그거 사라고 그러면은 꼭 나 불러가지고 나 그쪽 회장으로 있었는데 김 계장

이리 와 봐 저 아무데에 가서 아내 회사 거기 나무가 들어왔다는데 가서 한번 보고 와 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그거 사야 남는 게 없겠어. 나무라고 아주 나빠 가지고 사장님



그거 사지 말아요. 그거 사야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이 나는 아주 100% 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애들 학교 갈 지 올 적이 한참 자네는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5남매씩. 자기는 6남매 낳아 놓고 나더라고 5남매 낳은 거 많이 낳다고? 아! 뭐 사장님은 뭐 6남매나 나더라 5남매나 낳아서 낳타 보니까 그렇게 낳아서 그래 근데 그 양반이 한 가지 된 거 있어요.

내가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려니까 노냥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구술자: 그 돈이 노냥 가불을 하면은 그 사장은 첫째 그게 하나 된 거요.

저놈이 애들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놈이구나! 그놈은 어디까지 봐줘야 겠다. 해가지고 애들 납부금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쪽에 뭐 납부금 나오면은 가불을 신청하면은 이제 사원들은 이제 조금 뭐 하잖아요. 가불이 잔뜩 밀려 있으니까 그 사장 사람 뭘 하면은 무조건 애들 납부금 때문에 가불해 달라고 돈이 많이 가불이 밀렸어도 무조건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대척대척 뭘하면 그냥 결제 안 받고도 그냥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이제 밀리는 거는 아무리 밀어도 내가 이제 다 갚을 때까지 그냥 못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양반도 그렇게 애들 가르치는 걸 그렇게 상당히 칭찬했어요.

그래서 애들 끄떡없이 학교 가르치고 먹여 살리고 그랬지.

면담자: 그래도 그 사업주가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구술자: 그래서 그 양반이 나는 양심적으로 뭐이고 하는 구나! 해가지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양반이 자기도 모르는데 아들이 외아들이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게다 이제 넘기게 된 거지.

이제는 지금 우리 회사 해안실업이 있던 데가 거기 아파트 하나 바로 그 철길 건너든 뭐든 나 홀로 아파트마냥 아파트 하나 이렇게 지은 거 있지? 바로 그 옆으로 대경목재 났는데 거기도 나 홀로 아파트마냥 이쪽 재목점이 있던데 집 지었는데. 크게 그냥 건너 쪽으로는 주위 집 자리인데 주위 집자리도 집 그거 짓고 처음에 짓고 그러고 나서 대경목재 그 재목 점 장사하던데 거기도 그냥 지어가지고 그거 다 나갔는지 모르지.

그리고 그 옆으로다가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파트 거기 하나 지은 거 있어요.

그게 옛날에 천일목재라고도 하고 나중에서 해안실업이라고 난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팔고서 남동으로 이사 갔죠.

면담자: 해안실업?

구술자: 예.

면담자: 그냥. 천일목재?

구술자: 처음에는 천일목재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안실업으로 이름을 변경한 거지.

거기서 가지고 나 신임 받아 가지고 주위 아들 게다 모여서 내가 뭐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때 이제 남동으로 안 가고 남동공단은 안 가고 그냥 그만두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뭐 했더니 사장실 단방에 김형배씨 부르라고 주의 아들 보고 그런 거야.

근데 그놈이 주의 아들은 왜 모르냐면은 내가 거기 그 전에 다니다가 그만두고서는 뭣 했는데 1년 치를 더 안 주는 거여. 사장이 와서 장대기 탁탁 치면서 아이 뭐 했어. 그동안 그러더라고 잘 왔어. 탁탁 두드려 주고.

구술자: 그래서 거기서 내가 74에 퇴사 했어요. 73에 그쪽에 나와 그쪽에도 젊은 놈 뭣지 않고 뭐이고 했는데 그래서 서운한데도 나보다 나이 적은 놈도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되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때 74이면은 저기 한참 나이 때 나도 그냥 저기도 젊은 놈 못지않게 했으니깐.

면담자: 그쵸!

구술자: 그래 이제 여기 칠순잔치 할 때도 회사 사람들 다 와서 이 우리 할매는 나보다 4살 아래거든 아! 저렇게 못하게 나도 하는데 잘해줬어요.

근데 쥐 어매는 더 잘해주는 거야. 우리 큰며느리가 머리를 아주 똑똑해요.

큰 며느리 시집오고 나서 큰 며느리는 먼저 몇 년 전에 갔지만은 와가지고선 이게 아니다.

5남매 계를 하든지 그래서 단합을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단합해가지고 한 앞에 얼마씩 내라. 직장 다 있으니까 직장은 다 좋으니까 내라고 해가지고는 그 돈을 뭉기 시작한 거예요.

구술자: 그래가지고선 우리 할매 환갑 때! 너는 내가 그랬지. 야! 나 여행 갈라 면은 뭐 하려면 어디고 호텔도 고급 호텔로 잡았다요. 그래 ‘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호주로 다가 이제 가는데 우리 할매 생일 때요.

가자마자 그냥 그 뒷날 환갑날이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서 따라갔거든.

가이드가 케이크 하나 사고 샴페인 사고해서 주더라고.

그날 아침에 저기 사진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선 그때 이제 거기 가서 그 일행들만 같이 그날 샴페인 터뜨렸지. 우리 할매는 그래도 환갑잔치를 크게 잔치는 안 했어도 그래도 호주가서 그래도 환갑 현 사람이여. 그래도 자식들은 그래도 애들이 착하니깐 그렇게 잘해 준 거예요.

면담자: 그쵸!

구술자: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돈으로 뭉 가지고 칠순 잔치 그냥 봉투 안 받고 둘을 다 해줬지. 나는 환갑잔치도 했어요. 지금은 환갑잔치 61면 애들로 알잖아요.

나는 환갑잔치까지 한 사람이여. 저기 사진도 걸어놨지만은 환갑잔치했지! 그쪽에는 봉투 받았어요.

구술자: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환갑잔치 할 적에는 돈 안 받을래 안 벌어 내가 돈 없으면은 안 받을래 안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칠순 때는 애들이 컸으니까 애들이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봉투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봉투 받으면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칠순 때 돈 받으려 안 받으려면 하고 받으려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돈 안 받기로 하고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때까지 해줬는데 그런데 쥐 어매 찍이는 아주 더 거창하게 해줘.

나보다도 그냥 사진도 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그 앨범은 싹 해서 나오고

면담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 이회림 회장님이 인천시에 기부한 송암미술관에 대해서 송암미술관 아시죠? 고 이회림 회장님 돌아가신 이회림 회장님 송암미술관 송암미술관 아세요?

구술자: 맞아. 맞아. 미술관 여기도 있어.

면담자: 그거에 대해서 동네 주민도 잘 알고 계신가요?

구술자: 뭘 사람들 여기 오래 산 사람들 다 알죠.

면담자: 다 알죠. 예. 예.

구술자: 그 양반이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전부 기증 시에다 기증이 있다 오는 것 같더라고.

면담자: 네. 네.

구술자: 그렇게 참 정말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여태 살았으면 꺼떡 없이 동네 사람들 그냥 막 같이 끌고 갔지. 근데 자식들은 동네 사람들 끼면 골치 아프니까 땅 6천 평 때 주고선 그냥 말은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돈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개발되면 거 보면 알지 이제는.

면담자: 마지막으로 이번 구술 기록이 이 내용 있잖아요.

구술자: 예?

면담자: 우리가 우리가 녹화하고 녹음하는 내용.

구술자: 예?

면담자: 지금 지금 녹음하는 거 있죠?

구술자: 예. 예.

면담자: 이 녹음하고 대화나 인터뷰 하잖아요.

구술자: 예.

면담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술자: 아이구! 별것도 아닌데 이걸 뭘 어서 그 모든 걸 여기 모든 것 현재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알았으면 좋지. 좋게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때 지금 우리 여기 이사를 적에만 해도 이 길 밑으로는 집이 없었어요. 밭이지 여기 8톤 차가 여기 그 길로 들어왔으니깐 거기 밭이었으니깐 밭이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서 그게 집짓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집 이거 사가지고 대충 수리하는 데도 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다 버렸는데 뭐 개화장이고 뭐이고 다.



면담자: 이 내용이 대대손손이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한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서 자료가 돼서 아이들한테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거예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구술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면담자: 네. 네. 네.

지원자: 막내 아드님이 군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여기 학익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군산으로 함께 이전한 직원들이 많아요?

구술자: 이제는 어디 갈 데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부 그거 따라 갔지여.

지원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방 세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기 이제 집 사가지고 들어가고 세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자: 발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막내아들은?

구술자: 예 지금 거기 가서도 발전소 지었는데.

지원자: 다 소다회 만들 때 필요한 그 발전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발전소 발전소 일을 하는 거죠. 아드님은?

구술자: 그렇죠. 거기 이제 전기 뭇 하는데. 거기서 군산서는 군산 그 매립지 있거든요.

거기 다 매립지 언니 선수들 와서도 그 매립지에서 뭐 하다가 물 차고 해가지고선 물 못하고 그냥 간 적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하는데 공장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발전소 지은 것이 전기 거기다 팔아먹고 스팀 있잖아요. 스팀 팔아먹고 하려고 거기다 원래 지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은 얼마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는 스팀 팔아먹고 거기서 돈 버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니까 밑에 사람들 데리고 이제는 다 공사도 하고 다 이력저력 하는 거지.

지원자: 네.

면담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구술자: 예. 아!

면담자: 마무리 짓겠습니다.